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7.23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80.10원 (+6.70원)

KOSPI

6,797.70 (+49.75, +0.74%)

KOSDAQ

751.09(-2.25, -0.30%)

국고채 10년 금리

4.394(+0.066%p)

본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신흥국 전략

인도로 돌아온 외국인,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 [김근아]

기업분석

RFHIC

호재 나올 텐데 주가는 급락, 정답은 매수 [김홍식]

산업분석

통신 장비

미국 어퍼 C밴드 경매는 초대형 이벤트입니다 [김홍식]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Oil, 대한항공, 오리온, 한화생명
금호석유화학, 에스티팜

하나증권

2026년 7월 23일 | Global Asset Research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로 돌아온 외국인,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도 주식·채권시장 외국인 수급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 여부는 불확실

외국인 자금이 6월 인도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데 이어, 7월 들어 주식시장에서도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우선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크게 작용했다. 인도 정부는 6월 초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적용되던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외국인이 한도 없이 매입할 수 있는 FAR(Fully Accessible Route) 적용 채권의 범위를 확대해 투자 수익성과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높였다. 여기에 인도 국채의 블룸버그 글로벌 종합채권지수(Bloomberg Global Aggregate Index) 편입 가능성을 선반영한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6월 이후 외국인의 인도 채권 투자는 크게 확대됐다.

증시의 경우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데다, 글로벌 자금이 AI·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 증시에 집중된 영향으로 상반기 내내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졌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인도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가운데, 6월 말 종전 협상 기대를 바탕으로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빠르게 하락하자 인도 경제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됐고, 외국인 수급 역시 순매수로 전환됐다. 또한 AI·반도체 관련주의 단기 과열과 수급 쏠림에 대한 부담이 부각되면서 일부 글로벌 자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AI 노출도가 낮은 시장으로 분산된 점도 인도 증시의 수급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최근 달러/루피 환율이 다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루피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유가 상승 시 달러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한다. 미국·이란 종전 기대와 함께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협상이 지연되고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다시 반등했고, 이에 따라 루피화에 대한 절하 압력도 재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6월 미국 CPI와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긴축 우려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달러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루피화 약세를 완충하는 요인이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달러/루피 환율의 상승 압력을 충분히 상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루피화 약세가 장기화되거나 추가로 심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자금 유입도 제약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최근의 수급 개선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환율 부담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2026년 07월 2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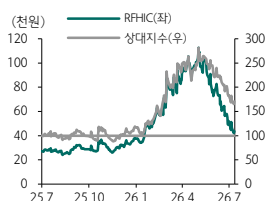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150,000원
현재주가(7.22) 44,9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751.09
52주 최고/최저(원)	112,500/24,000
시가총액(십억원)	1,193.5
시가총액비중(%)	0.27
발행주식수(천주)	26,553.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31.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6.8
외국인지분율(%)	29.91
주요주주 지분율(%)	
조석수 외 20 인	33.51
삼성자산운용	5.8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61.6	348.3
영업이익(십억원)	54.2	81.1
순이익(십억원)	52.2	73.6
EPS(원)	1,665	2,365
BPS(원)	14,329	16,322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14.9	185.8	265.5	318.0
영업이익	1.5	30.9	54.1	75.3
세전이익	25.0	37.8	59.3	78.0
순이익	25.7	28.7	37.9	57.4
EPS	969	1,082	1,428	2,162
증감율	48.62	11.66	31.98	51.40
PER	13.52	30.18	30.50	20.14
PBR	1.05	2.40	2.91	2.60
EV/EBITDA	24.94	21.13	17.61	12.64
ROE	8.60	8.84	10.35	13.78
BPS	12,453	13,625	14,979	16,745
DPS	100	400	400	4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RFHIC (218410)**호재 나올 텐데 주가는 급락, 정답은 매수****매수 투자의견/12개월 목표가 15만원 유지, 미국 이벤트 발생 전 매수 추천**

RFHIC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15만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최근 실적 흐름 및 향후 전망이 양호한 데다가 미국 주파수 경매 이벤트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주가가 급락하였고, 2) 데이터 센터 수요 둔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역으로 AI RAN 투자 수요 증가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며, 3) 루멘텀 수주 동향을 감안하면 자회사인 RF 머트리얼즈의 이익 기여도는 2027년에도 증가 양상을 나타낼 것이 유력하고, 4) 고주파수인 미국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의 대표 수혜주이며, 5) 삼성의 미국 버라이즌 장비 수주 시 CAN TR 부문 독점적 위상을 나타낼 것이라 높은 Multiple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027년 글로벌 5G 투자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급락에 따른 단순 동반 주가 하락 현상이 나타난 바 기존 목표가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한다.

데이터 센터 영향 미미, C밴드 투자 움직임 나오면 주가 크게 오른다

최근 미국 광통신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였다. 아무래도 데이터센터 성장을 둔화 우려와 높은 Multiple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그런데 RFHIC의 경우엔 설사 데이터센터 성장 둔화가 현실화 된다고 해도 굳이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없다. 수주 상황을 감안하면 자회사 영업이익 기여도는 2027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본사 실적은 미국 주파수 경매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Multiple 역시 무선 통신장비 성장을 및 M/S 추이, CAN TR 수급 상황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센터가 아닌 주파수 경매 이벤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 국내 시각 기준 7/23일에 미국 FCC가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과 승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RFHIC 매수에 나설 것을 권한다.

국내외 시장 영향으로 주가 급락, 곧 2차 상승 전개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

국내 코스닥 시장 급락 및 미국 통신장비주 급락이 RFHIC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선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3개월 만에 고점대비 RFHIC 주가가 66% 하락했다는 점을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단순한 투자 심리 악화 및 수급 불안이 RFHIC 주가를 하락 시켰기 때문이다. 사실상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의 핵심 과제는 AI를 위한 기지국 건설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5G SA 조기 구축/6G로의 연결이다. 더불어 규제 기관의 주파수 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OBBBA 법안 제정을 통해 장기 800MHz의 주파수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6년 6월 AWS 3밴드에 이어 2027년 초 어퍼 C밴드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2027년 가장 강력한 통신장비 투자 기반인 미국 어퍼 C밴드 경매가 목전에 이른 상황에서 RFHIC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2차 상승에 대비한 매수를 고민할 시점이다.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7월 22일

썬리드(050890)

BUY | TP 30,000원 | CP 9,100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218410)

BUY | TP 150,000원 | CP 44,950원

LIG아큐버(073490)

BUY | TP 80,000원 | CP 26,65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50,000원 | CP 14,710원

아이씨타케이(456010)

BUY | TP 60,000원 | CP 14,450원

우리넷(115440)

BUY | TP 25,000원 | CP 6,70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150,000원 | CP 47,20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18,42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9,410원

에치에프알(230240)

BUY | TP 50,000원 | CP 16,220원

세나테크놀로지(061090)

BUY | TP 80,000원 | CP 45,900원

2026년 7월 23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 장비

미국 어퍼 C밴드 경매는 초대형 이벤트입니다

미국 어퍼C 밴드 경매 일정 확정 및 2027년 본격 투자 전망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곧 어퍼 C밴드(3.98~4.14GHz) 160MHz에 대한 경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승인이 유력해 보인다. FCC 구성 및 의제로 보면 그렇다. 주파수 경매 시점은 2027년초로 전망되며 장비 성능 시험 및 벤더 선정 절차를 감안하면 장비 수주는 2027년 1분기, 납기/선적을 감안한 매출 발생 시점은 2027년 2분기로 예상된다. 어퍼 C밴드 투자 규모는 과거 2021~2022년 수준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에서 주파수 경매 가격이 50~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 등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여태껏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주파수라 새롭게 투입될 물량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지의 주파수 투자 개시, 글로벌 AI RAN/피지컬 AI 붐 촉진할 것

2026년 6월 AWS 3밴드 65MHz 경매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향후 4년간 총 800MHz에 달하는 대규모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런데 사실상 본 게임은 이번 어퍼 C밴드 경매부터 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주파수 재할당이 아닌 사실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주파수인데다가 할당 폭도 크기 때문이다. 신규 주파수이지만 황금 대역이라 불리며 버라이즌과 더불어 AT&T, 스페이스X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 어퍼 C밴드 경매는 글로벌 AI RAN과 피지컬 AI 투자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이어 국내, 일본에서도 5G/6G 투자 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IT 업체들이 AI 데이터센터 이후 차세대 먹거리 찾기에 분주한 상황에서 AI RAN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기지국 장비의 변화, 즉 AI RAN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 5G/6G 투자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명분을 얻고 있어서다. 향후 20년은 피지컬 AI 패권 다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국내/일본 규제 기관들의 대응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국내 무선통신장비주 역올한 주가 급락 기록, 2차 상승 진입 시 무섭게 오를 수도

6~7월 국내 무선통신장비 업체 주가가 급락하였다. 50% 이상의 주가 하락을 나타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다소 역올한 측면이 있다. 코스닥 시장 급락과 미국 광통신 관련주 하락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이미 고점이 지난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무선통신장비주의 경우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직 업황 회복이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무선 통신장비주 상승이 2027년 이후 빅사이클 진입 기대감의 선반영이었다면 향후 미국 통신사들의 주파수 경매 참여 및 투자 계획 발표, 장비 업체 선정, 수주 결과, 매출 발생 등이 순차적으로 국내 통신장비 업체 주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비관적으로 봐도 국내 무선통신장비주의 경우 2028년 초까지는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 낙폭 심화로 2026년 8월 이후 2차 상승이 나타난다면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KMW/RFHIC/HFR 등 무선통신장비주 적극 매수를 추천한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7/20	255,000	260,500	2.16%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7/20	334,000	321,000	-3.89%	- ESS·테슬라량 원형전지 출하 증가로 2분기 3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 기대 - GM 재고 소진에 따른 EV 배터리 가동 재개와 AI 데이터센터 기반 ESS 수요 성장 기대
KB금융 (105560.KS)	7/20	181,100	175,100	-3.31%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한화에너지스페이스 (012450.KS)	7/20	943,000	891,000	-5.51%	- 약 39.7조원 규모의 지상방산 수주잔고와 연내 수주 파이프라인 구체화 기대 7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시제계약자 선정 기대감 부각
S-Oil (010950.KS)	7/20	144,900	141,700	-2.21%	8월 OSP 마이너스 전환과 투자 종료로 이익배당 매력 확대 기대 - 유가 약세에 따른 사민 프로젝트 수익성 개선과 순차입금 축소 기대
대한항공 (003490.KS)	7/20	26,500	24,900	-6.04%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오리온 (271560.KS)	7/20	128,400	128,600	0.16%	-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한화생명 (088350.KS)	7/20	4,540	4,430	-2.42%	-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와 업계 최상위권 CSM을 바탕으로 중장기 이익 창출력 강화 기대 - 투자손익 회복과 자본 부담 완화로 실적 개선 및 배당 확대 가능성 부각
금호석유화학 (011780.KS)	7/20	123,500	117,700	-4.70%	- 합성고무 판가 상승과 페놀사업 흑자전환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 상회 전망 - NBL-SBR/BR-MDI 등 주요 제품의 업황 회복과 저평가 매력 부각
에스티팜 (237690.KQ)	7/20	124,300	113,000	-9.09%	- 글로벌 RNA 치료제 시장 성장과 올리고핵산 상업화 물량 증가로 수주매출 확대 전망 - 제2올리고동 가동을 상용과 고마진 상업용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41%	-3.24%p	+65.10%	+7.6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이노베이션 (096770.KS)	7/20	121,400	118,400	-2.47%	• 윤활기유 호조와 SK온 적자 축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정제마진 강세와 그룹3 윤활기유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대
금호석유화학 (011780.KS)	7/20	123,500	117,700	-4.70%	• 합성고무 판가 상승과 폐놀사업 흑자전환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 상회 전망 • NBL-SBR/BR-MDI 등 주요 제품의 업황 회복과 저평가 매력 부각
삼성전자 (005930.KS)	7/13	285,000	260,500	-8.6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5,100	-5.04%	•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효성중공업 (298040.KS)	7/13	2,924,000	2,679,000	-8.38%	• 미국향 초고압변압기-리액터 수주 확대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 부각 • 2분기 미국향 고마진 차단기 물량 매출 인식과 관세 환급 가능성으로 수익성 회복 기대
삼성증권 (016360.KS)	7/6	119,100	101,600	-14.69%	• 국내 증시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중심 실적 모멘텀 지속 기대 • 높은 배당성향과 주주환원 기조에 더해 리테일 고객자산 확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109,000	-0.89%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한국콜마 (161890.KS)	7/1	99,500	98,300	-1.21%	•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크어-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 • 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8.60%	+1.66%p	+38.62%	-18.8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5,690	-3.2%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	2026.02.24	15,160	12,425	-18.0%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40,865	38.2%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PLUS 글로벌 HBM반도체 (442580)	2026.07.16	106,895	107,005	0.1%	- HBM(고대역폭메모리) 밸류체인인 핵심 제조사와 장비·부품·소재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HBM 집중 테마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합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핵심 제조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외 글로벌 장비, 부품 관련 기업까지 편입해 HBM 성장 모멘텀 전반의 수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765	-2.2%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20,930	-1.7%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TIGER 글로벌 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7,550	-4.8%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23,130	-0.3%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15시 30분 기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3.73	86.69	3.5%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인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37	96.86	-1.5%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1.89	90.58	-1.4%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5.71	13.1%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84.08	72.2%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인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06.22	80.72	58.85	-27.1%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장 모멘텀 수혜 기대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77.67	180.14	1.4%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2.00	154.50	1.6%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증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06시(썸머타임 적용시 05시)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19	7.20	7.21	7.22	7.23	7.24	7.25
	- 중국 7월 대출우대금리 (3.0%, 이전치 3.0%) - 미국 6월 선행지수 (-0.2%, 이전치 0.1%)	- 한국 7월 수입 20일 (20.0%, 이전치 23.2%) - 한국 7월 수출 20일 (52.3%, 이전치 60.4%) - 유로존 7월 ZEW 경기심리지수 (23.4, 이전치 9.5)	한국 6월 PPI (E --, 이전치 8.5%)	- 한국 2분기 GDP A (E --, 이전치 3.8%) - 유로존 7월 단기수신금리 (E --, 이전치 2.25%) - 유로존 7월 소비자가지수 P (E --, 이전치 -17.7)	- 일본 6월 CPI (E --, 이전치 1.5%) - 일본 7월 S&P 제조업 PMI P (E --, 이전치 54.8) - 일본 7월 S&P 서비스업 PMI P (E --, 이전치 52.2) - 미국 7월 S&P 제조업 PMI P (E --, 이전치 53.9) - 미국 7월 S&P 서비스업 PMI P (E --, 이전치 51.2) - 미국 6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7.3%)	
7.26	7.27	7.28	7.29	7.30	7.31	8.1
	미국 6월 내구재 주문 (E --, 이전치 -4.5%)	- 한국 7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106.6) - 미국 6월 도매 채고 (E --, 이전치 0.1%) - 미국 5월 FHFA 주택가격지수 (E --, 이전치 -0.1%) -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91.2)	일본 6월 공작기계 수주 (E --, 이전치 52.8%)	- 미국 7월 기준금리 (E --, 이전치 3.75%) - 유로존 2분기 GDP (E --, 이전치 -0.2%) - 유로존 6월 실업률 (E --, 이전치 6.2%) - 영국 7월 기준금리 (E --, 이전치 3.75%) - 미국 6월 개인소득 (E --, 이전치 0.7%) - 미국 6월 개인소비지수 (E --, 이전치 0.7%) - 미국 6월 PCE (E --, 이전치 4.1%)	- 한국 6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0.9%) - 일본 7월 기준금리 (E --, 이전치 1.0%) - 일본 7월 실업률 (E --, 이전치 2.5%) - 일본 6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1.9%) - 중국 6월 제조업PMI (E --, 이전치 50.3) - 중국 6월 서비스업PMI (E --, 이전치 50.2) - 유로존 7월 CPI (E --, 이전치 2.8%) -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E --, 이전치 49.5)	- 한국 7월 수출 (E --, 이전치 70.7%) - 한국 7월 수입 (E --, 이전치 30.1%)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중립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